

졸전 또 졸전 ... KIA, 멀어진 4강 꿈

무기력 호랑이 ... 벤치는 뭐했나

LG와의 졸전이 선동열에게 풀어야 할 숙제를 남겼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8·9일 7위 LG 트윈스에 이틀 연속 연장승부에서 역전패를 당하며 올 시즌 최악의 졸전을 기록했다.

난적 SK, 특히 '괴물' 김광현을 제압하고 떠난 원정길이었지만 KIA는 시즌 내내 보여준 약점을 고스란히 노출하며 마지막 4강 길목에서 자멸했다.

7일 경기에서 SK 마운드를 상대로 11점을 뽑아냈던 타선은 8일에도 1회 4점을 만들며 화끈한 타격전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후 연장 12회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점은 나오지 않았다.

9일에도 KIA는 주키치를 상대로 2회 3점을 만들며 기선 제압에 성공했지만 역시 연장 10회까지 침묵이 이어졌다. 경기는 4-5 그리고 3-4 역전패로 끝났다.

주전들의 부상과 타선의 빈타를 탓하기에는 무기력한 이닝들이었다.

개막과 함께 '타격'문제가 지적됐지만 시즌이 막바지에 이르도록 벤치는 그 답을 찾지 못했다. 또 1점이 부족했던 승부에서 KIA의 공식처럼 나온 빈트 외에는 상대의

❶ 최악의 타격

개막 때부터 지적 시즌 막바지에도 해답 못 찾아

❷ 불안한 수비

키스톤 콤비 실수 연발 ... 결정적일 땐 1루서 사고

❸ 빈약한 작전

1점 승부 빈트 외에 상대 허 찌르는 노림 수 없어

❹ 남겨진 숙제

냉정한 평가·자신감 회복·숨은 가능성 찾아내야

허를 찌를 노림수는 없었다.

부상이라는 돌발 변수 앞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구상하지 못한 KIA는 폭발과 침묵을 오가는 타선에 결국 '가을잔치'의 베팅 끝에 실패했다.

영성한 수비는 타격보다 더 큰 후유증을 남겼다.

지난 시즌 KIA는 2루수 안치홍을 중심으로 탄탄한 수비를 과시하며 8개팀 중 가장 적은 실책을 기록했다. 하지만 개막과 함께 나온 안치홍의 결정적인 실책을 시작으로 내야진의 위축된 플레이가 계속됐다. 천연잔디로의 교체에 따른 적응, 타선 부진에 따른 실점에 대한 부담감 등이 맞물리면

서 실책 2위에 올랐다.

선동열 감독이 실수연발의 안치홍·김선민 '키스톤 콤비'에 대해 쓴소리를 하며 "수비가 좋은 선수를 기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지만 결정적인 사고는 1루에서 터지고 말았다.

4-0으로 기분 좋은 출발을 했던 8일, 1회 말 수비 시작과 함께 조영훈의 실책이 나오면서 1점을 내줬다. 3-1의 리드를 하던 9일 3회말 2사 만루에서도 조영훈의 실수가 나오면서 1점차 승부가 이어졌다.

최희섭의 공백에서 1루 수성의 임무를 맡았던 조영훈은 올 시즌 74경기에서 10개의 실책을 기록하며 고개를 숙였다. 대체자원으로 끝났던 김주형도 신임을 얻지 못해 1루는 KIA의 취약지역이 되고 말았다.

비슷한 패턴의 똑같은 실수 그리고 연속된 패에 가을 잔치의 꿈과 화끈한 야구를 기대했던 팬들의 마음이 식고 말았다.

'부상병의 귀환'만을 기다리던 KIA는 힘겨운 가을을 맞았다. 위축된 선수단의 자신감 회복, 전력의 냉정한 평가와 숨은 가능성 찾기가 선동열호의 숙제로 남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선동열 감독



전 세계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군 2012 런던 패럴림픽이 11일간 열전을 마치고 9일 오후(현지시각) 영국 런던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폐막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연합뉴스

종합 12위 '감동의 드라마'

패럴림픽 폐막 ... 한국 금은 동 9개씩 모두가 값진 메달

전 세계의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군 2012 런던 패럴림픽의 성화가 꺼졌다.

지난달 29일 개막식 이후 166개 나라에서 온 4310명의 선수가 503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했던 열전의 무대는 9일 열린 폐막식을 끝으로 수많은 감동의 이야기를 남긴 채 막을 내렸다.

135명으로 선수단을 구성한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9개, 은메달 9개, 동메달 9개로 대회 시상 전 목표했던 금메달 11개의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종합 12위에 올라 종합순위에서는 목표했던 13위를 넘어섰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 선수단이 획득한 메달에는 모두 남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

사격에서 2관왕(10m 공기권총, 50m 권총 SH1)을 차지한 박세균(41)은 이번 대회에서 유일한 다관왕으로 금메달 행진을 이끌었다.

강주영(44)은 한 손에는 총 자루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 방아쇠를 당겨야 하는 불편

한 몸으로도 금메달을 목에 걸어 감동을 안겼다.

광주출신의 김란숙(45), 이화숙(46), 고희숙(45) '숙자매'가 나선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림픽에서처럼 패럴림픽에서도 양궁은 효자 종목이지만 여자 단체전에서 한국이 금메달을 딴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수영 종목에서는 임우근(24)과 민병연(27)이 각각 남자 평영 100m와 배영 50m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패럴림픽 수영 종목에

서 금메달이 나온 것은 1988년 서울 패럴림픽 이후 24년 만이다.

2004년 아테네 패럴림픽 2관왕에 빛나는 '탁구왕' 김영건(28)은 남자 단식(클래스4)에서 중국의 장안을 꺾고 8년 만에 패럴림픽 우승자 자리를 되찾아왔다.

유도의 최광근(25)이 결승 시작 45초 만에 허리후리기 한관으로 상대를 매트에 눌렀던 장면은 이번 대회에서 우리 선수가 펼친 가장 화끈한 경기 장면이었다.

보치아에서는 한국 선수끼리 붙은 결승에서 최예진(21)이 정호원(26)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폐막식 첫 공식 행사는 환연대 성취상 시상이었다. 한국 최초의 장애인 여의사인 황연대 박사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의 고레고리 하르툼 부회장과 함께 시상자로 나서서 아일랜드의 육상선수 마이클 매길과 캐나다의 투척 육상선수 메리 자카요에게 순금 메달을 시상했다.

/연합뉴스

매길로이 또 역전우승

PGA BMW챔피언십

남자골프 세계랭킹 1위인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에서 2주 연속 마지막날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매길로이는 10일(한국시각) 미국 인디애나주 카멜의 크루키드 스틱 골프장(파72·7516야드)에서 열린 BMW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보기는 1개로 막고 버디 6개를 잡아내 5언더파 67타를 기록했다.

필 미켈슨(미국)과 비제이 싱(피지)에 1타 뒤진 2위로 4라운드를 출발한 매길로이는 최종합계 20언더파 268타를 적어내 지난 주 도이체방크 챔피언십에 이어 2주 연속 통쾌한 역전 우승을 일궜다. 우승 상금은 144만 달러.

올 시즌 PGA 투어에서는 혼다클래식과 메이저대회인 PGA챔피언십, 플레이오프 2연승 등 네 번째 우승이다.

페덱스컵 포인트 2500점을 추가하면서 7299점을 따내, 2위로 올라선 타이거 우즈(미국·4067점)를 월등히 앞섰다.

미켈슨과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가 공동 2위(18언더파 270타)로 대회를 마쳤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도 막판까지 선두권을 맹추격했으나, 공동 4위(17언더파 271타)에 머물렀다.

한국계 선수 중에서는 재미교포 존 허(22)가 공동 16위(10언더파 278타)로 페덱



BMW챔피언십서 우승한 로리 매길로이.

스컵 랭킹 26위에 올라 30위까지 출진하는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했다.

노승연(21·타이틀리스트)도 같은 성적으로 대회를 마쳤으나, 페덱스컵 랭킹에서는 37위로 한 계단을 끌어올리는 데 만족해야 했다. 케빈 나(29·타이틀리스트)는 공동 26위(8언더파 280타), 위창수(40·테일러메이드)는 공동 41위(4언더파 284타)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곡성군청 김문정 아시아볼링선수권 3관왕

광주체육회 조영선 금메달

곡성군청의 김문정(사진)이 제22회 아시아볼링선수권대회에서 대회 3관왕에 올랐다.

김문정은 9일(현지시각) 홍콩 불링시티에서 열린 대회 개인종합에서 5108점을 기록하며 싱가포르의 체리탄(5071점)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문정은 정다운(부평구청)과 출전한 2인조 경기와 전은희(서울시실업단)가 힘을 보탠 3인조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5인조에서도 전은희·정다운·백승자(서울시실업단)·계명영(양주시청)·이수정(충북도청)과 함께 출전해 6032점을 합작하며 동메달을 추가했다.



조영선 선수

조영선은 남자 3인조에서 홍해솔(한체대), 임동성(대구북구청)과 4025점을 만들어 한국의 3인조 동

남 우승을 이끌었다. 조영선은 홍해솔·임동성·이익규(인천교통공사)·천재우(천안시청)·최용규(부산광역시청)와 호흡을 맞춘 남자 5인조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했다.

남자 개인종합에서는 홍해솔이 5277점으로 은메달을 따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